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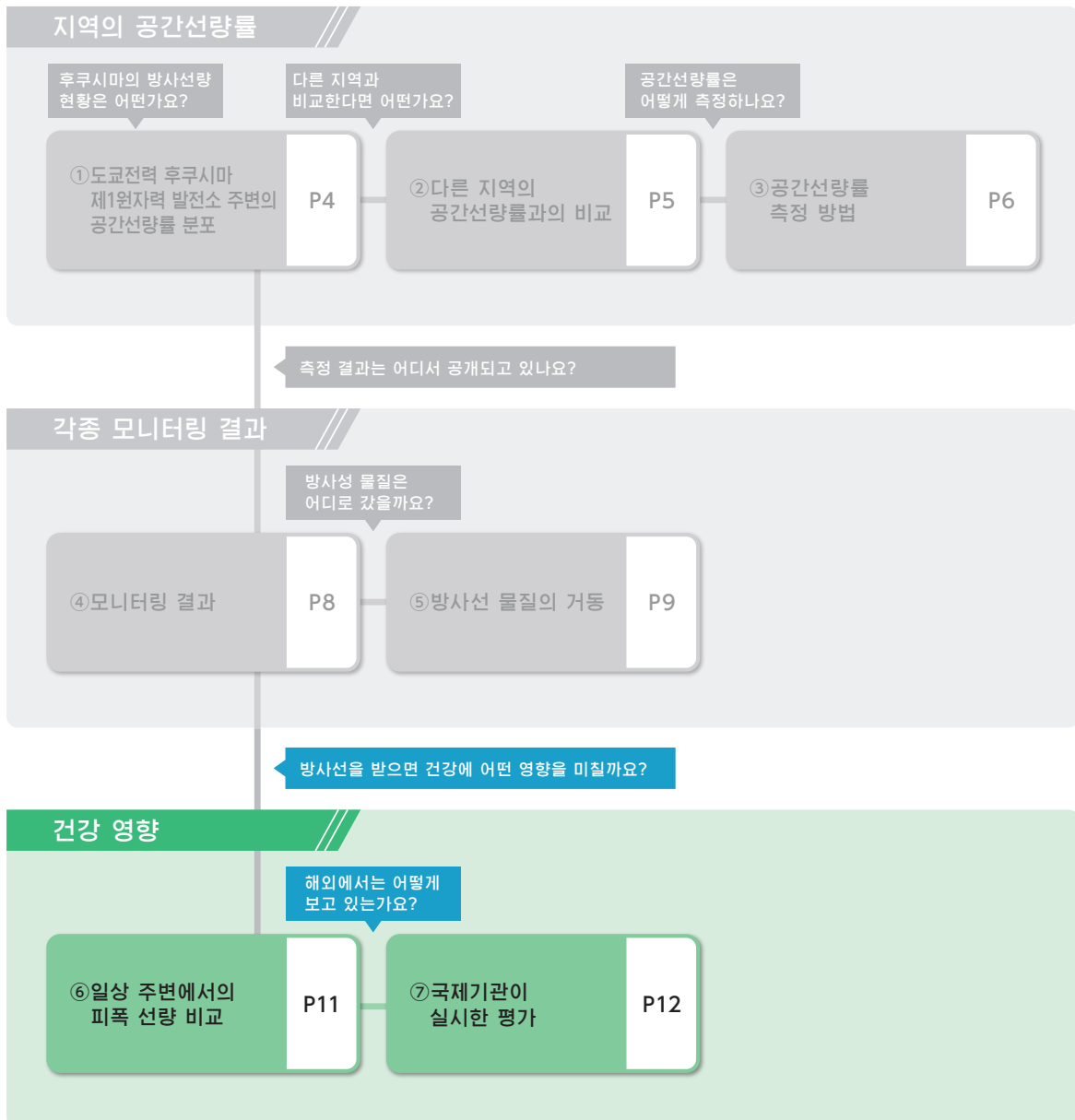


방사선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5개의 테마

방문

테마 건강 영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 생활 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방사선 피폭 및 그 선량에 대해 취합 정리했습니다. 또한, 방사선 피폭에 관한 국제기관이 실시한 평가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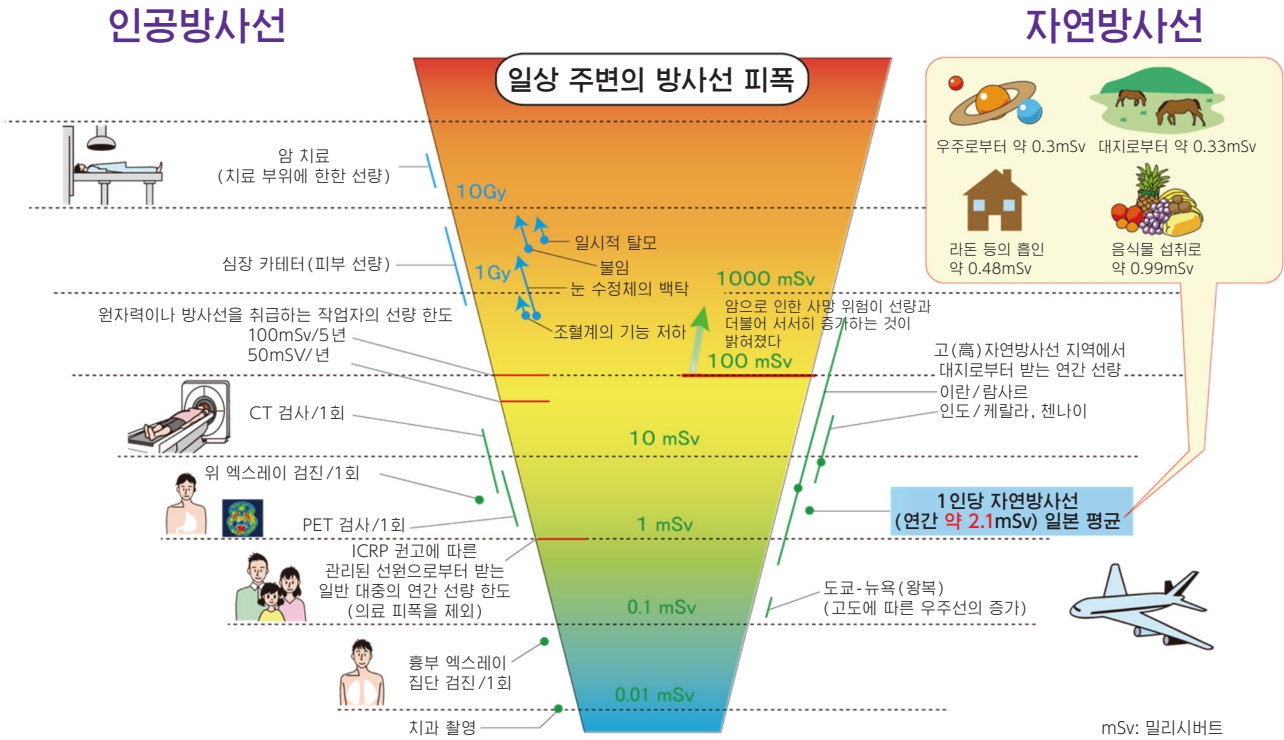




⑥ 일상 주변에서의 피폭 선량 비교

일상 주변에서의 방사선 피폭은 어느 정도의 피폭 선량일까요.

● 피폭 선량 비교 (조건도)



출처:

-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UNSCEAR) 2008년 보고서
- 일본 방사선 기사회 의료 피폭 가이드라인
- 등을 참고로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가 작성 (2018년 5월)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2007년 권고
- 신포 생활 환경 방사선 (국민 선량의 선정)

피폭 선량의 비교에 대한 상세사항은 2022년도판 상권 77 페이지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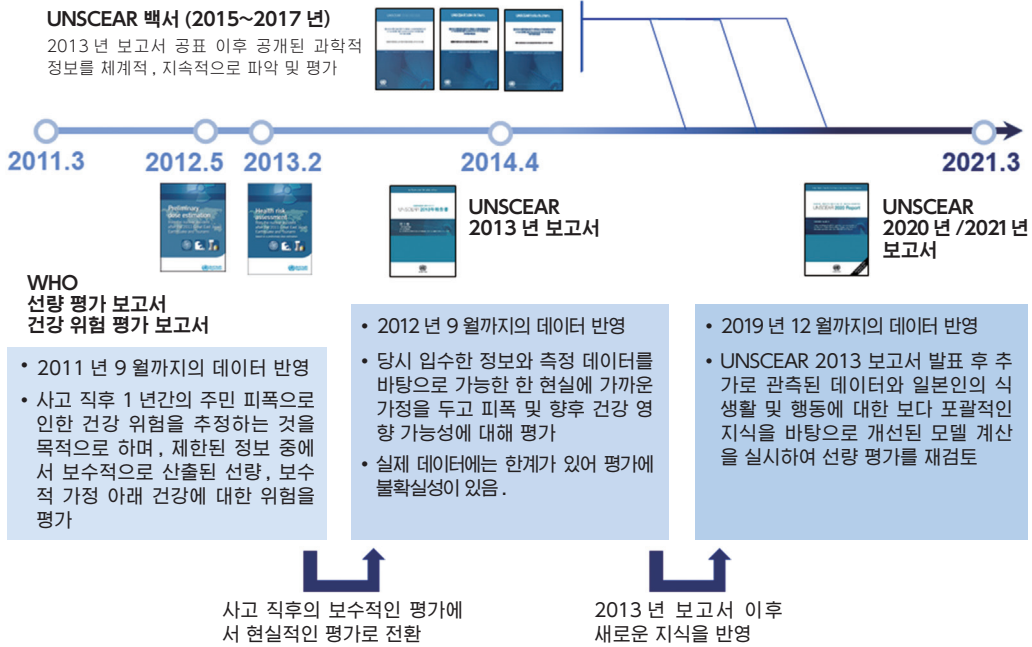
사람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는 피폭 선량은 100 밀리시버트 이상이라는 견해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사항은 2022년도판 상권 117 페이지를 참조



⑦ 국제기관이 실시한 평가

사고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는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선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주요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결론
WHO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폭선량이 가장 높았던 지역에서도 소아 갑상선암을 포함한 암, 백혈병의 발병 위험 증가는 적으며, 자연적인 편차를 초과하는 발생은 예상되지 않음. • 결과적으로 방사선 관련 질환의 과잉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UNSCEAR 2013년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암 통계에서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지 않음. • 피폭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아 집단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갑상선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향후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UNSCEAR 2020년 / 2021년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은 낮음. •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실시 중인 갑상선 검사에서 나타나는 갑상선암 발병률 증가에 대해서는 고감도 초음파 검진법이 적용됨에 따른 결과로 보임.

2012년과 2013년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2013년 보고서 모두 선량 평가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UNSCEAR 2020년/2021년 보고서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문제에 대해 보다 불확실성이 낮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기관의 보고서의 개요는 2022년도판 상권 189, 190 페이지를 참조(일본어)